



리암 니슨 출격

“시나리오 맘에 들었다”

27일 개봉작 ‘인천상륙작전’ 맥아더장군 역

‘쉽들러 리스트’(1993)로 세계적 배우 반열에 오른 리암 니슨(64)이 한국영화 ‘인천상륙작전’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1년여에 걸친 제작진의 간절한 러브콜이 있었기 때문이다.

11일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 제작진이 리암 니슨에게 인천상륙작전을 진두지휘하는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 역할을 처음 제안한 것은 시나리오가 완성된 2014년이었다.

당시 제작진은 맥아더라는 인물이 지닌 무게감과 진중함, 국적을 넘어 한국 관객에게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연기력, 그리고 실존 인물인 맥아더 장군과의 ‘싱크로율’ 등을 고려할 때 리암 니슨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리암 니슨 역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영화에 배역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그러나 할리우드에서만 주로 활동했던 터라 한국영화 출연을 선택 결정하지 못했고 캐스팅은 난항에 빠졌다.

지지부진하던 캐스팅 작업이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해 2월 이재한 감독이 연출을 맡으면서다.

이재한 감독은 리암 니슨과 같은 미국 에이전시 회사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AA) 소속이라는 이점이 있었다.



이 감독은 리암 니슨이 작품을 정할 때 감독을 중시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자신의 전작인 ‘내 머릿속의 지우개’, ‘포화 속으로’를 보냈다.

제작진 또한 리암 니슨이 출연했던 작품 중 맥아더 장군 역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추려 특별 제작한 영상을 전달하는 등 공을 들였고, 마침내 지난해 9월 리암 니슨은 출연을 확정 짓고 촬영에 들어갔다.

출연을 결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리암 니슨은 낯선 한국 촬영현장에 빠르게 적응했다.

리암 니슨은 직접 맥아더 장군에 관한 자료를 찾아 말투, 복장, 헤어스타일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발, 의상 등 맥아더 장군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소품부터 대사까지 추가로 제안하는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할리우드 스타답지 않게 함께 작업하는 스태프와 사진을 찍고 함께 밥차에서 식사하는 등 편안하게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CJ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했다.

리암 니슨은 오는 13일 한국을 찾아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는 레드카펫 행사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방한에 앞서 배급사를 통해 보내 온 서면 인터뷰에서 “‘인천상륙작전’은 부끄럽지만 내가 모르고 있던 역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영화의 주제는 주제와 소재가 매력적이었고 시나리오도 정말 좋았다”고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감독과 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정말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서 놀랐고, 함께 출연한 이정재 씨 역시 어떤 대사를 연기하더라도 설득력이 느껴지는 배우였다”고 한국영화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영화는 오는 27일 개봉한다. /연합뉴스



여자친구 ‘너 그리고 나’ 1위 석권

“민기지가 않았어요. 멤버들 모두 실감이 안 났습니다.”(유주)

6인조 걸그룹 여자친구가 11일 오후 4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첫 번째 정규 앨범 ‘엘오엘’(LOL) 발매 쇼케이스를 열고 음원차트 1위를 한 소감을 밝혔다.

여자친구는 이날 공개된 앨범 타이틀곡 ‘너 그리고 나’(나빌레라)로 7개 음원차트 1위를 석권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시간을 달려서’로 가온차트 상반기 결산 ‘디지털 톱 100’ 1위에 올라 이번 신곡으로도 흥행 가도를 이어가게 됐다.

신비는 “우리 색깔은 파워 청순”이라며 “여자친구의 색깔이 뚜렷해졌다는 반응이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너 그리고 나’는 여자친구의 상상이 된 기타 솔로와 신나는 록 사운드, 화려한 현악기 연주가 조화를

이룬 곡이다. 변신을 꾀하기보다 이전곡 ‘시간을 달려서’와 비슷한 분위기의 노래이다.

‘새롭게 시작해 볼래/ 너 그리고 나 사랑을 동경해 / 앞으로도 잘 부탁해’란 가사에 진정된 사랑을 하고 싶은 소녀들의 마음과 지난 석 장의 학교 3부작 미니 앨범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멤버들의 의지가 동시에 담겼다고 한다.

이들은 또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조지훈의 시 ‘승무’의 한 구절인 ‘나빌레라’란 표현을 가사에 인용해 한 마리의 나비처럼 좋아하는 사람에게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해 1월 데뷔한 여자친구는 첫 곡 ‘유리구슬’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을 달려서’까지 학교 3부작이라 붙인 석 장의 미니앨범을 잇달아 히트시켰다. 지금껏 함께 작업한 프로듀서팀 이기·용배와 또다시 손잡고 4연속 히트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첫 고소녀 공갈혐의 적용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고, 박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 측에 공갈 혐의를 적용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의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은 대체로 수사 과정에서 박씨와 성관계 도중에 박씨에게 싫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박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은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고소여성들 중 유일하게 증거를 제출한 첫 고소여성 A씨가 낸 성관계 당시 착용한 속옷에서 박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이는 성관계 유무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지 성관계 강제성 여부까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었다. 경찰은 여성들이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박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육성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월에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다큐멘터리 3일(재)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타)(재)	00 닥터 365 05 특집 다큐멘터리 (운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웍스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감성애니 하루	00 1대100(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다큐 공감(재) 55 도전 K-스타트업 2016(재)	00 KBS 뉴스타임 10 2016 리우올림픽 특집 (다시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05 내꺼야 풀콜 30 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55 튜닝생활제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 킥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특집다큐 (검정교육 꿈과 끼를 키운다)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특별기획 (문스타)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리우 올림픽 기획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해외결작다큐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 생활영어	10:30 한국기행(재)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디큐 오늘
05:30 건강안아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세계사 시간여행	<지구의 뜨거운 심장 자바 - 바다의 낙원, 맨장안>
05:40 세계전문 아틀라스 (새상국지 - 신이 된 영웅 관우)	(매운 달걀개조림, 뽕어 썰러드)	15:30 피터레빗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20:50 세계테마기행
07:00 레이디 비그	12:00 EBS 정오 뉴스	15:50 보로로와 노래해요	<스페인 2부 하늘과 바다의 낙원>
07:30 로보카 폴리	12:10 시대감정(재)	16:00 코코몽3	21:30 한국기행
07:45 뽕뽕뽕 보로로	12:40 지식채널e	16:30 코코코 다코(재)	<보물섬 2부 여름 섬 잊었어 섬>
08:00 뽕뽕뽕 유치원1~3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6:45 뽕뽕뽕 유치원1~3(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코코코 다코	13:35 뷰티풀 코리아	17:30 뽕뽕뽕 보로로	<가정의 판타지, 극대치럼 여우처럼>
09:00 코코몽3	<신라인의 피안여, 경주남산>	17:45 로보카 폴리	극대치럼 여우처럼
09:30 원더볼즈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방송동인 우리아이 영재만들기)	14:00 로보카 폴리	19:00 레이디 비그(재)	<인생을 짊어지고>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30 EBS뉴스	23:35 시대감관
		19:50 극한직업 (이동식 푸드카 개조)	24:0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2일(음 6월 9일 乙未)	
子	48년생 행운의 탄성이 울려 퍼지리라. 60년생 많은 의문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니라. 72년생 본격적으로 길이 있게 다뤄야 할 단계이니 하나하나 심사숙고하라. 84년생 기준점을 넘어서면 부족함만 못하다. 행운의 숫자 : 63, 29	午	42년생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54년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지경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니라. 66년생 제3자의 충고를 명심하라. 78년생 마음먹고 있었던 바를 확실히 추진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77, 54
丑	49년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61년생 객관적이어야만 어느 누구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법이다. 73년생 바람의 흔들림으로 알고 가깝게 남겨도 된다. 85년생 잘못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과실이다. 행운의 숫자 : 87, 98	未	43년생 상황 조정되거나 훨씬 늘어나는 판세로다. 55년생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라. 67년생 빠른 속도로 행운이 다가오고 있으나, 79년생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영광스러움도 안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5, 11
寅	50년생 반추해 본다면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62년생 무궁무진한 변화의 면모이니 기민하게 대응하라. 74년생 균형과 실리가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86년생 복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46, 70	申	44년생 조개 속에서 명주가 나는 이치이니라. 56년생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리라. 68년생 고르려 처리해야 용이함을 꾀한다. 80년생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55, 50
卯	51년생 겉모습에 현혹된다면 상당한 낭비를 부를 것이다. 63년생 치우친다면 부조화에 따른 경색 국면에 이른다. 75년생 임시적인 방편으로 도모한다면 무의미하다. 87년생 바야흐로 길경을 맞이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8, 13	酉	45년생 집착하면 지나치게 민감해질 수도 있으니 마음을 비우는 것도 관찮다. 57년생 효험이 있는 약을 얻는 이치이니라. 69년생 너무 왕성하면 머지않아 쇠하리라. 81년생 마음속에 새겨서 잊지 않음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6, 64
辰	40년생 신중할 필요가 있다. 52년생 대양은 비에 젖지 않는 법이다. 64년생 작용에 따른 파장이 위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76년생 담백하고 말하는 셈이니 입만 아플 것이다. 88년생 급변으로 인한 충격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7, 47	戌	46년생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의탁하는 성향이다. 58년생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다. 70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다. 82년생 완성도를 높인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9, 81
巳	41년생 애매할 것이다. 53년생 우물거리는 공론도 귀담아 들으라. 65년생 처신을 잘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으리라. 77년생 안심해도 된다. 89년생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32	亥	47년생 조금씩 행편이 나아질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59년생 초기에 사려 깊은 공을 들여야만 한다. 71년생 갈 길이 바쁘니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83년생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유익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8, 2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